

차준희 교수의 예레미야의 영성을 찾아서

1강 소명의 영성

예언자의 소명패턴

예레미야 1:5-10은 예레미야(주전 627-585년경 활동)의 소명에 관한 본문이다. 예언자의 소명 본문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대화 형식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부름 받은 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소명이 이루어진다. 대화 형식은 다음의 네 가지 구성 요소로 형성되어 있다. ① 하나님의 부름, ② 부름 받은 자의 거절, ③ 하나님의 설득, ④ 하나님의 약속. 모세(출 3-4장), 기드온(삿 6장), 사울(삼상 9-10장) 그리고 예레미야의 소명(렘 1장)이 이러한 형식에 속한다.

둘째는 천상회의 환상 형식이다. 이것은 부름 받은 자가 환상 중에 목격한 천상의 회의(heavenly council)를 통하여 소명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사 6장)와 에스겔(겔 1-3장)의 소명이다.

전자인 대화 형식이 '강압적인 소명'이라면, 후자인 천상회의 환상 형식은 '자발적인 소명'이다. 다시 말해 전자에 속한 사람을 차출병(差出兵)이라 한다면, 후자는 지원병(志願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경우는 하나님의 강압에 의하여 징병된 차출병에 속한다.

1. 모든 신앙인은 소명자이다(5a절)

하나님은 그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그를 알았고 그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를 구별하였다. 여기서 '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지적인 앎을 넘어서 상대의 생각, 의도 그리고 감정적 차원 즉 총체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앎을 뜻한다. 또한 여기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는 표현은 아모스 3:2의 "내가 너를 알았다"에서 나타난바 같이 '선택'의 의미를 가진다.

다음에 나오는 '구별하다'(히_카다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인데, 이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품성 또는 자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쓰임새에서 벗어나서 특별히 취급받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음을 의미하는 종교적인 개념이다.

예레미야는 특별한 존재로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일이 '태어나기 전'에 결정되었다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직무의 불가피성'을 표현한 것이다. 예레미야는 출생할 때부터 세상과의 관계에만 얽혀있는 자연인(세속인)이 아니고 그곳에서 벗어나 일평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삶의 의미를 갖는 신앙인이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과제로 항상 씨름하는 사명자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레미야의 소명사건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임에 근거한 성직이다. 목회 직만이 성직이 아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그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신 일임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직업은 성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무조건 신학교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천직임을 깨닫고 새로운 각오로 자신의 직업을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감당해야 한다.

예화1) 법대생의 교회청년부 수련회에서 선교사로서의 서원 그리고 방향

2. 소명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한다(5b절).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열방의 선지자’(A Prophet to the Nations)로 세움을 받는다. ‘여러 나라/열방’(히_고임)이란 ‘민족들’(nations)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단어는 주로 이방 민족들을 뜻하지만 때로는 유다 백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히_고이)이 되리라”(출 19:6).

따라서 여기서 열방이란 유다를 포함한 이방 민족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유다를 포함한 이방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며 오직 유다만을 위한 사명은 아니었다. 그는 맹목적인 국수주의자(國粹主義者)들이나 편협한 민족주의자(民族主義者)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했다(참조. 렘 29:5-7; 38:1-6).

사실 아웨 하나님의 주권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예레미야의 사역 범위도 한계가 있을 수 없다. 아웨 하나님이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 세계의 종’으로 당연히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전해야 한다. 거짓 예언자는 자기 백성의 안녕만 추구하는 폐쇄적인 전망에 기초하지만, 참 예언자는 세계 역사라는 넓은 차원의 맥락에 기초한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임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소명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매사 하나님의 관점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 소명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그것이 가정이건, 교회가건, 직장이건, 교단이건, 나라이건 간)의 이익을 넘어 공공의 유익이라는 하나님의 이익을 대변한다. 소명자는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그에 따라 행동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한다.

3. 소명자는 자신의 능력 너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6절)

예레미야의 탄성(‘슬프도소이다’: 히브리어 ‘아하’의 문자적 의미로는 ‘아!’라는 외침)은 그가 공포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잘 드러낸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거절의 근거로 그가 처한 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렘 1:6).

이러한 이의(異義)는 ‘절대로 못 합니다’가 아니라 ‘아직은 아닙니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나아르)의 의미는 그 나이를 정확하게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소년’이나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사 8:14). 청소년기는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실 그에게는 백성들을 설득할 만한 능력과 언변이 부족하다(참조. 왕상 3:7; 출 4:10; 6:12, 30).

소명 당시 아이에 지나지 않았던 예레미야는 백성 전체를 향하여 발언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사역을 시작할 적기(適期)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만한 자격도 없었다. 이러한 권위의 부재로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즉 ‘자격미달’과 ‘임무의 불가능성’이 그가 제시한 거절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즉시로 답변하시고 설득하신다(렘 1:7). 첫째,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인간의 부적격성과 무경험은 오히려 하나님의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부름 받은 자가 스스로 부족하고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기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사 6:15[기드온]; 삼상 9:21[사울]). 자기 스스로 능력과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맡기신 이의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자를 택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택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인간적인 자격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으로 하는 것이다. 소명자는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자신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진 소명자는 자신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염두에 두고 산다.

4. 소명자의 책임소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7절)

하나님의 설득은 예레미야의 이의를 물리치면서 시작 된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

할지니라”(렘 1:7)라고 말씀하신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청중을 설득시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언자란 말씀의 심부름꾼으로서 ‘보냄을 받은 장소’에서 ‘주어진 말씀만 전달’하면 된다.

전달자의 책임은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한 청중의 수용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겔 2:7).

다만 전달자의 책임은 그가 받은 메시지를 가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전달받은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였느냐에 있는 것이다(렘 26:2). 메신저들에게는 ‘말씀의 전달력’이나 ‘말씀의 설득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실 ‘말씀의 전달력’이나 ‘말씀의 설득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정확도’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메신저들이 정녕 의식해야 하는 것은 메시지를 듣는 회중의 숫자나 그들의 반응보다는 오히려 매 순간 자신이 내리신 메시지의 오차를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을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서보아야 최종 판결이 주어진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는다고 하나님나라에서 영광과 칭찬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소명자의 성공은 삶에서든 사역에서든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간순간 올바르게 서는 것이다.

예화1) 고양이와 개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둘은 서로 다른 종(種)이다. 같은 종 안에서조차 저마다 존재의 고유성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존재의 고유성이 있다. 저마다 존재의 고유성이 있다면, 그 고유성을 실현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바라시지 않고, 모세나 엘리야처럼 되기를 바라시지 않을 것이다. 누구와 비슷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비슷하게 되는 것은 비슷할 뿐 그 비슷한 것이 진정한 ‘나’일 수는 없다. 나는 ‘나’가 되면 된다. 본래의 ‘참 나’를 발견하고 그 ‘참 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나를 지으신 조물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예화2)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런 버핏은 “나이가 들어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하였다. 업적(과업)지향적인 삶에서 관계지향적인 삶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5. 소명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동행해주신다(8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라고 권면하신다. 여기에는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임무가 위협적인 적대감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그들’이란 아마도 18절에서 언급된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고관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지방 유지들]”일 것이다. 예레미야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의 적들이 된다.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을 가진 자들이다. 이는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 이는 예레미야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전’(before)이 아니라 그 상황 ‘속’(in)에서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예레미야에게 고난과 위협 그리고 박해가 배제되지 않는다. 이는 십자가를 피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즉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해서 이 땅에서 고난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회피할 수 없는 신앙인의 현실이라면 한 신앙인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평탄한 길만을 주지 마소서
쉬운 길만을 걷지 못하게 하소서
때로는 역경과 환난을 주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아이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6. 소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한다(9절)

하나님은 그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행위는 구약성서에서 더 이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으로 일종의 ‘상징행위’에 해당된다. 신적인 영역과 인간의 영역 간에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 된다.

“너는 내 입 같이 될 것이라”(렘 15:19).

예레미야가 메신저로서의 전권(全權)을 위임받는 성직수여식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메신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참조. 렘 28:6-8).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 10:19-20).

7. 소명자는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본다(10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운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렘 1:10a).

여기서 ‘세우다’(히_파카드)라는 동사는 ‘대리인/감독자로서 일을 맡기다’라는 뜻이다(참조. 창 39:4). 예레미야는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제 그의 말은 인간의 말같이 흔히 효과 없이 허공을 울리는 소리나, 덧없이 사라지는 연기가 아니라 늘 강력하게 효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참조. 렘 23:29; 사 55:10-11). 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전하는 선포내용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심판에 해당되는 말씀이 네 가지이고 구원에 관한 것은 두 가지이다. 이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앞으로 선포해야 할 메시지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 그는 주로 심판을 선포하여야 한다. 둘째, 그러나 심판선포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 그는 구원도 전해야 한다. 셋째, 그런데 그 구원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인간의 ‘영점상황’(零點狀況: Nullpunktsituation)에서 시작된다. 잘못된 것을 모두 부수고, 다시 세우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절대적인 무로부터’(ex nihilo)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creatio)라고 할 수 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야웨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사 45:8 등).

예언자적 선포란 모름지기 현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는 비판적이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미완성이다. 청중의 기대를 뛰어넘는 희망도 포함한다(렘 32:6-15; 겔 33:10-11; 37:11-12). 예언자는 결국 구원과 희망을 선포하는 자이다.

“야웨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예언자는 맹목적인 낙관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절망적인 비관론에 포로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한다. 진정한 말씀은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지만, 안일에 빠진 자들은 괴롭힌다. 예언자는 그 시대가 보지 못하는 앞선 시대를 먼저 깨닫고,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나가는 말

우리의 이웃은 <신앙이 충만한 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너가 좋은 상식인>을 계속하여 찾고 있다.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아무리 영성 있게 가르쳤다고 자부심을 가진다 해도, 정작 성도들이 일터에서 가족들과 동료들과 접촉 불량, 소통 불량으로 일관한다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전에 나의 질문은 이것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렇게 묻는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 <부름 받은 일터>에서 교회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또 능력을 입도록 도우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미국 복음주의 진영의 목사 W. Kallestad.

나침반 바이블
BIBLE